

공공배달앱 '대구로' 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더 '이득'

대구시, C사 배달 플랫폼과 비교 소비자-소폭, 소상공인-12% 저렴 대구로 출시 이후 수수료 87억 절감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대구시의 독자적 플랫폼 '대구로'가 정산 속도, 배달비 등에서 민간 배달앱보다 더 나은 혜택을 서비스 이용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주고 있다는 대구시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주 민간 배달 플랫폼 C사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대구시가 이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대구로'가 C사보다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인 것

로 나타났다.

최근 C사가 발표한 무료 배달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던 메뉴 가격의 5~10% 할인혜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러 집을 동시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 서비스인 '세이브배달'에만 적용되며 5월 31일까지는 기존의 할인과 무료 배달 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시가 위와 같은 C사의 정책을 소비자·소상공인 양측 면에서 '대구로'와 비교한 결과, 2만2000원 음식

을 '대구로'에서 주문할 경우 소비자는 C사 대비 소폭 저렴한 금액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C사 대비 주문 1건당 약 2000원(C사 정산 금액의 12.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구로'는 출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87억원 이상 절감했으며, '대구로택시'의 경우도 택시 택시 호출앱 대비 저렴한 수수료(1콜당 200원, 매월 3만원 한도)로 택시 기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대구로'는 시민들의 착한 소비로 절감한 수수료를 다시 할인 혜택을 돌려주는 '착한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기준 965개 가맹점이 착한매장으로 등록돼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대구로'는 지난 2월 기준 회원 수 52만7000명을 돌파해 대구 시민 5명 중 1명 이상이 '대구로'를 가입했고, 누적 배달주문 618만5000건, 가맹점 1만8000개를 기록하는 등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에 맞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민간 배달앱 독과점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전국적으로 전체 배달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로'는 월평균 배달주문 약 20만건을 수행해, 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며 지자체 공공앱 중 유일하게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에 이어 몽골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나주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탠다.

환영 행사엔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몽골 아르헨가이주 바트첵겔군, 우기노르군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95명, 본국 인솔자, 고용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환영식과 더불어 경찰서, 소방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안내, 인권보호, 무단이탈방지 및 범죄예방,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나주(전남)=양수년 기자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11개 기업 입주

차세대발사체 개발 우선협상자에 한화어로 선정... 제조시설 건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한준 LH사장과 한화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흥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 발표와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 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 후속 조치로서 기업수요를 확정하고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특히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화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노스페이스 등 스타트업

들은 소형발사체 제작 및 연구개발, 비즈로 넥스텍은 발사체 엔진 개발 등을 수행하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 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면제 추진으로 국가산단 초기 조성·함께 민간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핵심 기반시설 구축 또한 빨라질 것"이라며, "고흥군이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는 2031년까지 1조 6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그중 핵심사업인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52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고흥군에서는 조속한 예타면제 추진을 위해 기업 수요확보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순천시 내달 1일 순천만국가정원 개막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4월 1일 10시,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을 스페이스 허브(남문광장)에서 개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 위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디지털적 요소를 덧입히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막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순천시가 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정원문화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개막식 볼거리 역시 풍성하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24개 읍면동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벤처스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정원문화산업도시 선포식, 어린이·청소년·청년 연합 퍼포먼스가 개막식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 전망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 기장군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첫 발

사업 대상지 수변공원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부산 기장군은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약 9만 4540㎡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한다.

스카이워크란 해안가나 산 정상 등에 설치한 구조물로,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하늘을 걷는 듯한 스틸을 느낄 수 있어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스카이워크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장군이 추진하는 '기장 스카이워크'는 기장을 대변할 인근 해안로를 따라 전망대와 산책데크, 주차장 등으로 조성된다.

부지 인근에는 봉대산과 동해가 맞

닿는 연해안과 함께 기장수산물체험 홍보센터, 월드컵 기념 등대공원, 오시리아관광단지 등이 가까워 스카이워크 조성 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긍정적인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군은 이번 용역으로 차질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구체화해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 스카이워크를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 액티비티 시설로 구상,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또 기장 스카이워크 일원을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전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기장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내년 완도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국제조정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내년 6월에 열릴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벨기에 다머(Damme)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슬로시티 국제조정이사회'에 20개국,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 도시로 완도군이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시장 총회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33개국, 296개 도시(한국 17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주요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하며 웰니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완도의 매력과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시장 및 슬로시티 네트워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정책 공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완도군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완도군의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 정책이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고성군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사 모집

경남 고성군이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2024년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선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창출을 돕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가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는 달리, 고성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년을 고용한 지역 업체에는 월 100만 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청년에게는 근무 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